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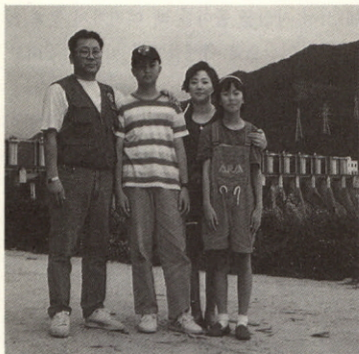
다녀왔습니다

- 김경석 선생님 댁을 다녀와서 -

탐방일시 : 1994년 12월 31일

어디서 : 김경석 선생님 댁

탐방자 : 윤정훈, 신윤철, 임형섭



유난히 사고가 많았던 94년도 마지막 날에 우리들은 김경석 선생님 댁을 향해 걸었다. 거의 다왔을 무렵 선생님댁의 문은 서서히 열리면서 생각과 달리(?) 따스한 온기가 흘러나왔다.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은 학교에서와는 사뭇 달랐고 온화했다. 거실에서 선생님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으시며 정답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다. 마지막에는 맛있는 저녁까지 대접해 주시는

자상함을 보이셨다.

편집부 :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셨습니까?

선생님 : 음력 1948년 4월 15일에 대전 밑에 있는 논산에서 태어나 5살까지 부산에서 지내다가 6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 그후 서울에 있다가 대학 졸업후 ROTC로 소위관 직책을 맡아 통일 전망대가 있는 전방 12사단에서 근무, 2년 4개월후 제대했고, 그후 75년 경기도 화성 서산중학교에서 1년간 교사를 하다가 76년에 인천 광성중교사로 오게 되었다. 88년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주로 학생과 학년주임을 맡다가 현 교장선생님의 권유로 89년 인항 고등학교로 오게 되었다.

편집부 : 자녀교육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선생님 : 엄하게 하는 편이지만 공부에 일일이 간섭은 안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무관심한 건 아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잘 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편집부 :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 : 속썩이면 급한대로 한대 먼저...

편집부 : 무슨 과를 전공하셨습니까?

선생님 : 국어 교육과를 전공했다.

편집부 :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 (망설이시다가)본의가 아니고 아버님께서 점수시키셨다. 대학갈 당시(60년대)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일단 교사만 되면 잘 벌진 못해도 평생 밥은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부모 얘기라면 옳다고 생각했고 적성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았다.

편집부 : 교사란 직업에 대한 회의와 보람은 어떤 때 느끼십니까?

선생님 : 회의를 느낄 때는 주로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가 한 예일 것 같다. 작년에 한 학생이 문문제지에서 머리를 각이고 교장선생님께 편지 쓴 사건(?) 너희들도 알 겠, 교장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읽어 주셨던 거 말야. 그리고 보람을 느낄 때는 물리적 힘을 쓰지 않았는데도 학생(학생과에 자주 오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때이다. 또 올해 한 학생과 대림 APT에서 만나 교문까지 오면서 5분 정도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군.

편집부 : '왕초'라는 별명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선생님 : 광성중학교에서부터 있었다.

편집부 : 답입을 맡으셨을 적에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선생님 :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으며 주로 반장을 통해 운영한다. 하지만 이러면 안되겠다 싶을 땐 전체 기합을 준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따라주는 편이다. 학생들에게 말이 많아서 안된다. 되도록이면 학생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 것 같다.

편집부 : 선생님이 안됐다면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 영화 배우가 되었을 것은 거짓말이고... 유명인 보다는 음악 계통 쪽에서 자기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 그래도 직업 하나를 고른다면 설렁탕집 주인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

편집부 : 학생 과장은 얼마나 더 하시고 있습니까?

선생님 : 하기 싫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백 번 잘해도 백 번 욕먹는 게 학생과장이다.

편집부 : 선생님의 교육관과 생활신조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서 유달리 강조하셨던 "거짓말하지 마라."이다.

편집부 : 현재의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선생님 :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약다고 할까? 그래, 야비하고 이기주의적인... 한마디로 영악한 것, 그런 놈(?)은 정말 꼴보기 싫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머리 쓰는 것보다는 말없고 우직한 학생들이 되기 바란다.

편집부 : 미팅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 없지... 아니 ROTC때 한 번 했었는데, 자본금 2천원으로 만났는데 그 삼순이(?)가 가도 되냐고 묻길래 가라고 했더니 진짜로 가버렸다. 그때의 충격으로 미팅은 삼갔었다.

편집부 : 사모님과 선생님과는 어떻게 만나 시게 되셨습니까?

사모님 : 광성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체가 서무과에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중매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연이 닿아 78년 10월 9일에 결혼했죠.

편집부 : 원래 어느과에 가고 싶으셨어요?

선생님 : 연극영화과. 국민학교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고 워낙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고교시절 영화보러 다니기 바빴으니까. 물론 음악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서 부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았다.

편집부 : 물래 영화 보러 갔다 들킨 일이 있으신지요?

선생님 : 제목은 기억이 안나는데 프랑스 영화였다. 제목이 '××× 여인'이던가 '××의 성'이던가?... 아무튼 그때 학교에서

우미관이라는 2류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갔는데 재미가 없어서 몰래 거길 빠져나와 그 시간에 프랑스 영화를 보러갔다. 그런데 걸리고 말았지. 그때는 이름표를 뜯어갔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학교에서 연락이 없었어. 담임선생님께선 몇마디 꾸중하셨고 그걸로 끝이야.

편집부 : '김일성조카'와 '삼돌이'는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까?

선생님 : '김일성조카'는 군대에서 중대장이 써먹던 말인데 들을 때마다 배꼽을 잡던 일이 생각난다. 그리고 '삼돌이'는 욕하는 것보다 유머스러우면서도 왠지 토속적인 느낌이 든다. 어떤 영화 제목에 '원한 맺힌 삼돌이'도 있는데...

편집부 : 사모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술버릇은 어떠신지요?

사모님 : 나쁜 버릇은 없으신 데 술이 취하시면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애들하고 장난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다가 좀 많아지셔요.

편집부 : 평소에 집안일은 얼마나 해주시는지요?

사모님 : 잘 거들어 주세요.

편집부 : 선생님의 잠버릇은 어떠세요?

사모님 : 더운 걸 못 참는 성격이라 발을 내놓고 주무세요.

편집부 : 선생님이 고맙게 느끼실 때는 언제인지요?

사모님 : 우선 건강하셔서 좋고, 또 말이

없으시니까 남자다워 좋고, 물론 인격적으로도 존경해요.

편집부 : 미우셨을 때는 언제신지요?

사모님 : 의견 일치가 안될 때와 고집을 세우실 때가 가장 미워요.

편집부 : 선생님께서 잘 만드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사모님 : 비비는 종류, 즉 국수를 잘 만들어 드셔요.

편집부 : 선생님, 컨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 컨-닝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요새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 베끼는 것이 컨-닝이 아니다. 그건 어저지로 점수 먹는 거지. 컨-닝도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다. 공부하고, 즉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는 것 한 두개정도 컨-닝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닐까?

편집부 : 교교시절 수학여행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 당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선생님이 몇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시며 자유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친구 3명과 함께 시내 영화관으로 가려다 옆에 막걸리 집으로 들어갔다. '메뚜기 안주'라고 쓰인 그곳에서 막걸리를 먹다 보니 선생님께서 들어오라고 한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그 사이 여관에서는 학생들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다. 우리 넷이서 여관에 들어가니 마당에 전교

생이 모여 있었고 우리가 들어오자 전교생은 숙소로 들어가고 우리는 담임선생님께 등산 지팡이로 기억에 남도록 맞았다.

편집부 :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선생님 : 바둑 친구가 오면 바둑 두고, 술 친구가 오면 술도 먹고...

요새는 집앞에 있는 헬스클럽에 간다. 물론 혼자서.

편집부 : 사모님께 묻겠습니다. 자녀분은 몇이나 두셨는지요?

사모님 : 딸아들은 지금 관교중 3학년이고 이름은 영희, 딸애는 구월여중 1학년이고 이름은 영은이에요. 요새는 늦둥이가 유행이라는데 생기면 낳고 싶군요.

편집부 : 영희가 만약 우리 학교로 배정받는다면?

선생님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학교 배정 방법이 바뀌어서...

편집부 : 이성 교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근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도를 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성을 사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교회'라고 생각한다. 규칙적으로 만나 얘기할 기회가 많으므로... 그렇다고 이성 때문에 교회가 나간다면 안되겠지.

편집부 :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선생님 : 집사람은 천주교, 나머지는 무교, 그러나 종교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간혹 몇

■ 탐방

몇 사이비에 열받아서 그렇지 나도 중3때까지는 교회에 나갔었다.

편집부 : 그럼 왜 교회에는 안 나가세요?

선생님 : 중 3때까지 다녔다해도 믿음이란 것이 부족해서인지 왠지 기도하는 것이 싫었다. 그러던 어느날 중등부 회장이 나더러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기도를 시키면 나가버린다고 했는데도 그 회장 녀석이 진짜로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기도하려고 두손 모으고 눈 감은 틈을 타서 진짜로 나와 버렸다. 그 이후로 난 하나님께 적혀서 교회에 못 나간다.

편집부 : 외박은 해 보셨는지요?

선생님 : 안한다. 외박을 왜하냐? 술은 좋아하지만 다음날 학교 수업 때문에 밤 늦게까지 술 먹는 적은 없다.

편집부 : 교육부 장관이 되신다면?

선생님 : 교육부 장관에 앞서서 장관과 같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과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사이의 이해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수능 시험만 하더라도 행정상으로 좋은 방안일진 모르나 선생님들에겐 기본 진도 외에 따로 수능 준비와 거기에 본고사 준비까지 해야 하니... 만약 내가 장관이 된다면 행정 위주 정책보다는 교육 현실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신경을 쓸 것이다.

편집부 : 국어 공부의 방법과 읽을만한 책을 권해 주신다면?

선생님 : 문과였지만 국어 공부는 그리 많이 하지 않았다. 영화를 많이보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교과서는 그냥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책을 많이 보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천성적 차이일지도 모르지만 난 영화를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같은 것을 보니까 스토리의 전개가 파악되었다. 권해 주고 싶은 책으로는 내가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 소설류를 권하고 싶은데 이문열 작 '사람의 아들'이란 소설을 권하고 싶다.

편집부 : '축제'에 대해 평가좀 해주세요.

선생님 : 축제 때문에 선생, 학생 모두가 고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매년 조금씩 바뀐다해도 신선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program 자체를 공모 등에 의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바뀌어 할 것 같다. 또한 여지껏 축제에서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거기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포스터를 제작 안한 이유는 포스터에 투자한 만큼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서였다. 지하도에 또는 거리에 붙인다고 해서 지나가던 시민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또 축제에 오는 이들은 대부분 각 부서들과 관계가 있거나, 또는 미리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년엔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으며 제작비를 줄이고도 깨끗한 디자인을 찾는 중이다.

편집부 :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와 권해주고 싶으신 영화에 대해 말해 주세요.

선생님 : 주로 기억에 남는 영화는 중 1때 처음 보았던 '대장 부리바'이다. 여지껏 영

화로 TV로 Video로 거의 6번 정도는 보았는데 볼 때마다 재미있었다. 기억에 남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독일 여배우가 있는데 정말 예뻐서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권해주고 싶은 영화는 '닥터 지바고'이다. 워낙 대작인데다 재미도 있다.

편집부 : '지각, 줄음과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 문과는 주로 지각, 이과는 수업시간에 줄음에 초점을 맞추고 지도한 것이 사실이다. 원래 의도는 학습 분위기를 잡자는 것이었는데 학부형과 학생들은 본 의도와 달리 구속하는 쪽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해 못하면 차라리 그만 두는게 낫다 싶어서 중간에 그만 두었다.

편집부 : 군대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말해주세요.

선생님 : 군대에서 자주하는 운동중에 격구란 것이 있다. 어떻게든(손을 쓰건 발로 차건)상관없이 상대방에 골인 시키면 되는 운동인데 다른 중·소대와 막걸리 내기 시합을 많이 했다. 지면 무엇을 사줄지 종이에 써놓고(양팀 모두)이기는 팀이 자기 것을 찢어버리고 상대 팀 것을 PX에 가져가 사온 후 마음껏 먹는 것이다. 그런 시합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

편집부 : '금연교실'의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 : 학생지도는 학생과가 아니라도 선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2년 전인

가 3년 전인가엔 담배 피다 적발되면 한달간 수업을 안시키고 어깨띠(담배 피지 말자)를 두르게 하고 복도에 풀어 앉아 있게 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화장실을 깨끗이 하니 적발 건수가 줄어 들었고 다소 경계를 늦추었다. 저번에 문과에서 적발된 삼들이 들은 처음엔 3학년인줄 알았다. 학교를 벗어나면 통제할 길이 없는 것이 흡연이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는 학교에서 잘 안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편집부 : '첫사랑' 얘기 좀 해 주세요.

선생님 :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였다. 당시 병원집 딸아이였는데 정말 예뻐했다. 어느날 도시락 반찬을 뺏어 먹다가 그 아이가 우는 바람에 선생님께 걸려서 벌받은 적이 있었다. 현재는 물론 만나지 못한다. 그런데 기막힌 건 중 1때 다시 만난 순간이다. 당시 간장염에 걸려 있던 나는 그 아이의 병원에 갔다. 어느날 소변을 받기 위해 화장실(당시 남여 공용)에 갔는데 마침 누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였고 운명적으로 다시 만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편집부 : 선생님께서써의 다짐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 말이 많은 선생님보다는 단지 잘못을 지적해 주고 학생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이 되는 것이 좋겠다.